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567
결재일자	2015.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복지기획담당	복지정책과장	교육문화복지국장		
한미경	이병성	민지선	03/19 도일환		
협 조					

찾아가는 「보건·복지플래너」
지원대상 확대관련 관계부서 외의 결과보고

2015. 3 .13

교육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플래너」

지원대상 확대관련 관계부서 회의 결과보고

2015.3.2.(월) 마을·복지·사회적 경제회의시 “보건·복지플래너 사업 대상을 기존 어르신외에도 추가로 장년층, 아동·청소년 플래너까지 확대 운영방안 검토” 구청장님 지시사항과 관련, 관계부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타당성 및 추진 방안을 논의 하였음.

I 회의 개요

- 회의일시 : 2014.3.13.(금) 14:00
- 장 소 : 자원봉사센터 회의실(7층)
- 참 석 :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시범사업3개동, 일자리경제과, 보건소, 아동청소년센터, 예비운영1개동
- 안 건 : ① 플래너 사업에 아동, 청소년, 장년층 포함 관련
② 플래너 사업 전산화 작업 관련

II 주요 회의 내용

① 보건·복지플래너 사업에 장년층, 아동·청소년 포함 관련

- 장년층 포함 검토
 - 장년층의 주된 욕구는 일자리와 경제적인 부문으로 지자체에서 자원 확보의 한계가 있어 포함하기 어려움
- 아동·청소년 포함 검토
 - 아동·청소년을 돌봄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성북구 198천세대 전수조사 필요
 - 성북구 초등학생 2만5천명중 1만2천5백명(맞벌이가 50%)이 돌봄을 필요로하나,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수용되는 인원이 1천1백명, 지역아동센터에서

8백~9백명으로 총 2천명 만이 돌봄 수혜 대상임.

- 초등학교에서 1만5백명의 돌봄 관련 설문지 회수율이 10% 내외임

- 지역아동센터에서 통·반장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돌봄을 필요로 하는 기초조사를 기 실시한바 있으나 응답율 미비와 통·반장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욕구 기초자료가 없음
- 욕구대상 발굴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과 같은 지역자원 인프라 구축 절대적 필요

□ 종합 검토 결과

- 돌봄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가정은 대부분 맞벌이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 수요처를 발견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통·반장을 활용한 돌봄 대상자 발굴 필요
- 아동복지센터와 동 마을복지센터, 학교, 교육청 등의 교육관련 허브역할과 사례관리 네트워크 망 구축 필요
- 빈곤 위기가정을 방문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장년층을 사례관리 담당이 위기가정 복지플래너에 포함시켜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② 보건·복지플래너 전산화 작업 관련

- 사회복지통합망과 엑셀자료를 통합하여 욕구를 분석하고 자원을 만들어 연계 할 수 있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전산작업 필요
- 기타 범위를 보완하여 범위를 좁히고 상담내용을 기재하여 분석할 때 필요한 자료로 사용
- 복지분야 욕구는 기존 엑셀자료를 이용하여 파악하고, 보건분야의 욕구 파악은 용역을 통하여 하기로 함

※ 관련 사진

